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9, Vol. 8, 75-90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하 근 영 · 홍 달 아 기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남성 120명과 여성 182명을 상대로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교우관계는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 상호작용의 내용, 교우관계의 지속기간,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동질성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감과 우울증으로 측정하였다. 행복감과 우울증 모두 교우관계의 내용 중 심리적 지원의 상호작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상태로 분석했을 때 교우관계의 요인들보다 건강이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Key Words: 교우관계, 건강, 노인, 우울증, 행복감]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는 특히 1980년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서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하근영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gkrms@hanmail.net로 하시기 바랍니다.

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가현, 1998).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의존성이 높은 노인들의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의존성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왔으며, 그 결과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중에서도 자녀들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차원의 부양체계가 연구의 초점이었다 (박수정, 1992; 서병숙·이현, 1995).

그러나 가족의 윤리 규범에 의해 과거의 성인자녀들은 노인들에게 절대적인 부양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을지라도 현대의 자녀들은 그러한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부모와 자녀들의 상호 지원의 체계가 호혜적인 관계를 벗어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곧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현대의 노인들은 동년배 집단과의 접촉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노인들의 사적인 부양체제도 최근 연구의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친구관계를 통하여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친구관계의 유지는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불만족스러운 관계에 대한 대안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발전되며, 또 동년배들과의 교류는 관심사와 역사사건의 경험의 서로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유용한 자원이 되고 있다 (서병숙·이현, 1995). 즉 노년기에서의 친구관계는 친족관계와 같은 다른 어떤 사회관계보다도 노인의 사기와 복지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노인들의 대다수가 가족 이외의 친척이나 친구, 사설협회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 그 중에서도 가족의 도움 다음으로 친구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성규탁, 1990).

국내에서는 노인들의 친구관계를 살핀 연구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교우관계 자체가 노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규탁, 1990; 정경희, 1995). 그렇지만 친구관계를 정의하는 폭이나 내용들은 연구자마다 매우 제한된 상태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있었다.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친구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시도했던 친구관계의 요소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의 수, 교우관계가 지속된 기간,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 친구의 거주지와의 거리, 본인과 친구 중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주체,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내용 등을 모두 포함시킨다.

또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내용도 도구적, 심리적, 의례적, 사교적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며 (박수정, 1992), 접촉의 방법도 전화통화와 직접 만남의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역시 친구관계 이외에도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응용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감과 우울증으로 국한시켰으며, 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도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동거형태, 건강 지각, 및 용돈의 8가지로 제한시켰다. 노년기 친구관계의 특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노인 복지를 위한 사적자원을 재발견하여 노인 부양의 일차적 인적 자원으로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자

조사대상자들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성 120명과 여성 182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69.4세($SD = 7.0$)이었으며, 그들의 연령분포는 60세에서 65세가 전체의 36.4% ($n = 110$), 66세에서 70세가 23.5%($n = 71$), 71세에서 75세가 19.9% ($n = 60$), 그리고 76세 이상이 20.2%($n = 61$)이었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약 57%($n = 172$)이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비율은 약 43%($n = 130$)이었다. 또 그들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혼자서 살아가는 조사대상자의 비율 10.3% ($n = 31$), 배우자하고만 살아가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33.1% ($n = 100$), 장남 가족과 동거

하는 조사대상자는 28.2% ($n = 85$), 장남이 아닌 아들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은 16.6% ($n = 50$), 딸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은 4.0% ($n = 12$), 그리고 미혼의 자녀나 손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7.9% ($n = 24$)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그들이 지출하는 월 평균 용돈으로 측정하였는데, 5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17.2% ($n = 52$),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이하의 비율이 27.2% ($n = 82$),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의 비율이 26.5% ($n = 80$), 2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하의 비율이 17.9% ($n = 54$), 그리고 매월 평균 4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 ($n = 34$)이었다.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의 반응으로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2.2% ($n = 67$),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8% ($n = 102$),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0% ($n = 133$)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중졸이상의 응답자가 27.8% ($n = 84$), 국졸이라는 응답자는 36.4% ($n = 110$),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5.8% ($n = 108$) 정도였다.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약 57% ($n = 172$) 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용돈, 건강, 종교, 동거형태 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찾는 8개의 문항들과 노인들의 친구관계를 살피는 문항들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묻는 행복감 및 우울증 척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용돈은 매월 지출하는 용돈의 평균을 1만원 단위로 측정한 것이었으며, 건강은 ‘좋다’, ‘보통이다’, 및 ‘좋지 않다’는 3개 반응형태로 측정하였고, 그리고 종교는 유무로만 반응하도록 했다.

노인의 교우관계. 노인의 교우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윤희(1994)와 김영익(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7개의 영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친구의 수, 접촉의 빈도, 거리 근접성, 상호작용내용, 관계의 지속기간, 동질성, 및 방향성에 관한 문항들이다. 먼저 친구의 수는 노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인이 현재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수를 말하며, 접촉의 빈도는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와 전화연락을 취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측정한 것이다. 두 상황 모두 지난 1년간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가 ‘1년에 2-3회 정도’이면 1, ‘1개월에 1회 정도’이면 2, ‘1개월에 2-3회’이면 3, ‘1주일에 2-3회’이면 4, 그리고 ‘거의 매일’이면 5로 측정하였다.

거리의 근접성은 응답자가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와 접촉을 시도하는가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상 ‘같은 도’에 거주하는 친구일 경우 1, ‘같은 시군’에 거주하면 2, 그리고 ‘도보로 30분 미만’의 거리이면 3으로 측정하였다. 곧 높은 점수일수록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친구와 접촉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호작용내용은 4가지 차원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도구적 지원 3문항, 심리적 지원 3문항, 사교적 지원 4문항, 그리고 의례적 지원 2문항이었다. 도구적 지원의 3문항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간호하거나 병원에 데려다 준다”,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물질적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집안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이었으며, 심리적 지원의 3문항은 “울적하고 속상할 때 위로해 준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친구와 의논한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솔직히 속을 털어놓고 의지한다”이었다. 또 사교적 지원의 4문항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만난다”, “친목계나 등산, 여행을 같이 한다”, “그들과 함께 쇼핑을 한다”, 그리고 “평소 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이었으며, 의례적 지원의 2문항은 “애사나 경사에 인사·방문한다”와 “우리는 각자 생일을 기억하고 모인다”이었다. 모든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 1)’에서 ‘매우 그렇다 (= 5)’까지 반응하도록 하는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모두 Cronbach α 로 계산하였는데, 도구적 지원이 .81, 심리적 지원이 .67, 사교적 지원이 .89, 의례적 지원이 .69이었으며, 그리고 상호작용내용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76이었다.

관계의 지속기간은 친구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 지속된 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단위는 년(year)이었다. 동질성은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친구와 가치관이나 취미, 생활양식이 비슷한지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3문항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나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 “나와 취미가 비슷하다”, 그리고 “나와 생활방식이 비슷하다”이었으며, 그 문항들에 대한 반응 형태는 ‘전혀 다르다 (= 1)’에서 ‘매우 비슷하다 (= 5)’까지 Likert식 척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친구를 만날 때 주로 누가 만나러 가는가의 방향을 묻는 것으로 응답의 형태는 ‘내가’, ‘상대방이’, 그리고 ‘서로’의 3가지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감과 우울증을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행복감 척도는 한내창·정순일(1994) 및 박수정(1992)의 연구를 토대로 문항들이 선정되었는데, 모두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내 인생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평상시 생활에 만족스럽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어간다”, “나는 근심걱정이 많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는 하루하루가 재미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대해 두려움을 자주 느낀다”, 그리고 “나는 슬프거나 낙담한 일이 자주 있다” 이었으며, 모든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 1)’에서 ‘매우 그렇다 (= 5)’까지 Likert식 척도가 응용되었다. 행복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α 는 .87이었다.

또 우울증은 김수정(1996)이 사용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반응형태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와 동일했다. 그 문항의 내용들은 “나는 늘 기분이 좋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나는 원기 왕성하다”, “나는 종종 안절부절 불안하다”, “나는 자주 작은 일에 화가 난다”, “나는 외출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살아온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나의 상황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이었다. 총점의 점수가 높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을 우울증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α 는 .79이었다.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60세 이상의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1998년 2월에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도구의 일부를 수정한 다음 1998년 3월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숙지시킨 조사원들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누어주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사는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종교 단체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총 350명의 노인들을 만나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320명만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약 91.4%이었음), 또 응답자들 중에서 전체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302명의 자료만 최종분석단계에 이용되었다.

결 과

친구관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의 수의 반응에서 1-2명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약 19.1% ($n = 88$), 3명 이상에서 5명까지의 응답이 약 36.1 ($n = 109$), 6명 이상에서 10명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3.2% ($n = 70$), 그리고 11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1.6 %($n = 35$)이었다. 또 친구관계를 유지할 때 주로 자신이 접촉을 시도한다는 비율이 약 15.9 ($n = 48$),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접촉을 시도한다는 비율은 약 12.3% ($n = 37$), 그리고 약 71.9% ($n = 217$)는 서로서로 접촉을 시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도보로 30분 이내의 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49.7% ($n = 150$), 동일한 시군 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7% ($n = 123$), 그리고 타 지역이지만 같은 도내에 거주한다는 비율

하근영 · 홍달아기

<표 1> 친구관계에 대한 반응분포

변인	수준	<i>n</i>	%
접촉의 빈도 (직접 만남)	거의 매일	108	35.8
	2-3회/주	83	27.5
	2-3회/월	51	16.9
	1회/월	31	10.3
	2-3회/년	29	9.6
접촉의 빈도 (전화연락)	거의 매일	70	23.2
	2-3회/주	91	30.1
	2-3회/월	63	20.9
	1회/월	28	9.3
	2-3회/년	50	16.6
상호작용 (도구적 지원)	상 (12-15점)	44	14.6
	중 (7-11점)	150	49.7
	하 (3-6점)	108	35.8
상호작용 (심리적 지원)	상 (12-15점)	131	43.3
	중 (7-11점)	75	24.8
	하 (3-6점)	96	31.8
상호작용 (사교적 지원)	상 (16-20점)	99	32.8
	중 (13-15점)	121	40.1
	하 (4-12점)	82	27.2
상호작용 (의례적 지원)	상 (8-10점)	122	40.4
	중 (5-7점)	92	30.5
	하 (2-4점)	88	29.1

(다음 쪽으로 계속)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 지속기간	1년 미만	25	8.3
	1년-5년	78	25.8
	5년-10년	60	19.9
	10년 이상	139	46.0
동질성	상 (11-15점)	115	38.1
	중 (7-10점)	100	33.1
	하 (3-6점)	87	28.8

은 약 9.6%($n = 29$)이었다. 친구관계에 대한 그 밖의 반응 내용은 <표 1>과 같다.

또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행복감과 우울증의 평균 점수는 각각 31.95 ($SD = 6.85$) 및 28.97 ($SD = 6.34$)이었다. 행복감이 나 우울증 모두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나 교우관계의 변인들에 따라서 달랐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서 이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복감과 우울증에 대한 회귀분석이 각각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즉 교우관계와 관련된 변인들만을 토대로 먼저 분석하고 나서, 교우관계의 변인들 이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추가한 상태의 분석을 하였다. 또 교우관계 변인들 중에서 접촉의 빈도는 직접 만남과 전화연락의 2개의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방향성의 변인도 상대방 주도와 본인 주도의 2개의 독립변인으로 분해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후자의 방향성 변인의 분해 때문에 dummy 변인이 포함된 회귀분석을 하게 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도 동거형태는 독거 상태의 여부, 장남부부가족과 동거여부, 장남 이외의 아들가족과의 동거여부, 딸 가족과 동거여부, 미혼자녀와 동거여부 등 5가지의 독립변인으로 분해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dummy 변인으로 처리되었다. 역시 성별이나 배우

자 유무, 종교 유무의 변인들도 dummy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했다. <표 2>는 행복감을 그리고 <표 3>은 우울증을 분석한 결과이다. 또 <표 2>에서 방정식 I은 교우관계의 변인들만을 토대로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방정식 II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추가된 상태의 분석결과이다. 마찬가지로 <표 3>에서의 방정식 III은 교우관계의 변인들만을 토대로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방정식 IV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추가된 상태의 분석결과이다.

<표 2>의 방정식 I의 부분을 보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우관계의 변인으로서는 심리적 지원, 사교적 지원, 상대방 주도의 방향성 등 3개로 나타났으며, 그 3개 변인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20%이었다. 또 심리적 지원은 행복감에 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사교적 지원과 상대방 주도의 방향성은 부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추가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친구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변화시켜버렸다 (방정식 II). 즉 친구관계의 변인들 중에서 심리적 지원만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적 지원과 상대방 주도의 방향성의 효과는 사라졌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연령, 용돈, 건강, 종교유무의 변인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추가한 분석에서 종속추정치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42%로 상승하였다.

<표 3>의 방정식 III을 보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교우관계의 변인은 5개로 드러났다. 즉 친구의 수, 심리적 지원, 의례적 지원, 및 관계지속기간은 우울증에 부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적 지원은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그 5개의 변인들이 우울증을 설명해주는 정도는 약 32%정도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독립변인에 추가한 분석에서는 친구관계의 변인들 중에서 오직 친구의 수와 심리적 지원의 변인들만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정식 IV). 반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용돈과 건강으로만 드러났는데, 교우관계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우울증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7%이었다.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

<표 2> 행복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단순상관 관계	방정식 I		방정식 II	
			<i>b</i>	Beta	<i>b</i>	Beta
친구 관계 변인	친구수	.16**	.01	.11	.00	.08
	접촉형태 직접만남	-.06	.00	.01	-.00	-.03
	전화연락	-.02	-.00	-.08	-.00	-.09
	거리근접성	.11*	-.00	-.01	-.00	-.05
	상호작용 도구적 지원	.16**	.01	.11	.01	.06
	심리적 지원	.29***	.01	.31***	.01	.20**
	의례적 지원	.13*	.00	.03	-.01	-.05
	사교적 지원	-.07	-.01	-.24**	-.01	-.12
	관계지속기간	.23***	.01	.13	.00	.03
	동질성	.12*	.00	.03	.01	.09
	방향성 상대방주도여부 ^d	-	-.24	-.12*	-.18	-.09
	자신주도여부 ^d	-	.01	.04	.12	.07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성별 ^d	-	-	-	.00	.01
	연령	-.18**	-	-	-.01	-.13*
	교육수준	.31***	-	-	.00	.00
	배우자 유무 ^d	-	-	-	.14	.11
	용돈	.34***	-	-	.00	.17**
	건강	.49***	-	-	.20	.34***
	종교유무 ^d	-	-	-	-.24	-.19***
	동거형태 독거여부 ^d	-	-	-	-.24	-.11
	장남부부와 동거여부 ^d	-	-	-	-.00	-.00
	장남외 아들부부와 동거여부 ^d	-	-	-	-.18	-.11
	딸부부와 동거여부 ^d	-	-	-	-.00	-.00
	미혼자녀와 동거여부 ^d	-	-	-	-.24	-.10
<i>R</i> ²			.20		.42	
<i>F</i>			5.90***		8.64***	

* $p < .05$ ** $p < .01$ *** $p < .001$

d : Dummy Variable (여 1, 부 0)

<표 3> 우울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단순상관 관계	방정식Ⅲ		방정식Ⅳ	
			<i>b</i>	Beta	<i>b</i>	Beta
친구관계 변인	친구수	-.24***	-.01	-.13*	-.01	-.11*
	접촉형태 직접만남	-.09	-.00	-.11	-.00	.06
	전화연락	-.13*	.00	.02	.00	.01
	거리근접성	-.13*	-.00	-.10	-.00	-.06
	상호작용 도구적 지원	-.09	.00	.04	.01	.07
	심리적 지원	-.44***	-.01	-.38***	-.01	-.28**
	의례적 지원	-.26***	-.01	-.13*	-.01	-.07
	사교적 지원	-.03	.01	.22**	.01	.13
	관계지속기간	-.32***	-.01	-.20***	-.01	.13
	동질성	-.19**	-.01	-.04	-.01	-.09
	방향성 상대방주도여부 ^d	-	.19	.09	.12	.06
	자신주도여부 ^d	-	-.00	-.00	-.01	-.02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d	-	-	-	.01	.04
	연령	.12*	-	-	.00	.03
	교육수준	-.29***	-	-	-.00	-.00
	배우자 유무 ^d	-	-	-	-.21	-.15
	용돈	-.36***	-	-	-.00	-.14*
	건강	-.47***	-	-	-.22	-.33***
	종교유무 ^d	-	-	-	.20	.14
	동거형태 독거여부 ^d	-	-	-	.26	.11
	장남부부와 동거여부 ^d	-	-	-	.11	.07
	장남외 아들부부와 동거여부 ^d	-	-	-	.16	.09
	딸부부와 동거 ^d	-	-	-	-.01	-.01
	미혼자녀와 동거 ^d	-	-	-	.01	.04
<i>R</i> ²			.32		.47	
<i>F</i>			11.41***		10.20***	

* $p < .05$ ** $p < .01$ *** $p < .001$

d : Dummy Variable (여 1, 부 0)

논 의

본 연구는 노인들의 교우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추가했을 때 교우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우선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행복감은 부정편포곡선(negatively skewed curve)을 이룬 반면, 우울증은 정적편포곡선(positively skewed curve)을 이루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60대 초반의 노인들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심리적 안녕감의 기준에서 다소 안정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먼저 교우관계의 변인들이 행복감이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면, 심리적 지원이나 사교적 지원의 상호작용 내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 교우관계의 지속기간도 우울증을 설명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접촉을 하는 빈도가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Revicki & Mitchell, 1990),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이나 우울증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단, 전화연락의 빈도가 우울증과 상관이 있었을 뿐이다. 역시 친구의 수는 우울증을 설명해주는 요인이 되었지만, 행복감을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없는 자들을 친구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박수정, 1992). 그렇지만 교우관계의 유지에서 동질성 그 자체가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교우관계의 효과가 매우 상쇄되어 버렸다. 행복감을 설명하는 교우관계의 변인이 심리적 지원 단 하나로 줄어들었으며, 우울증을 설명하는 교우관계의 변인도 친구의 수 및 심리적 지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교우관계의 변인들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도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뜻이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도 건강은 행복감과 우울증을

결정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Jackson, Antonucci, & Gibson, 1990). 또 교육수준은 행복감이나 우울증과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반면, 우울증은 낮았다. 회귀분석의 결과 교육수준 그 자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반면 용돈이 많다고 보고한 노인들일수록 행복감이 높고, 우울증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윤종희 · 이해경, 1997), 회귀분석에서는 용돈의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곧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교우관계의 유지는 물론 건강의 유지,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해준다. 여기에서 교우관계의 요인들과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추론해본다면,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가 없을 때에는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건강유지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년기 생활계획 프로그램이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노인들에게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정 (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익 (1995). 도시 저소득층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1992). 중년기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 이현 (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 (3), 43-57.
- 성규탁 (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 10,

251-271.

윤가현 (1998). Editorial comment. *한국노년학연구*, 7, 3-4.

윤종희 · 이해경 (1997). 배우자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 (1), 289-304.

윤 희 (1994). *한국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형제 및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 (2), 52-68.

한내창 · 정순일 (1994).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그물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불교영산대학교논문집*, 2, 55-92.

Jackson, J., Antonucci, T., & Gibson, R. (1990). Cultural, racial, and ethnic minority influences on aging. In J. Birren & K.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pp. 103-123). New York: Academic Press.

Revicki, D., & Mitchell, J. (1990). Strai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rural elderly individual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5, S267-274.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hip networ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elderly**

Keun Young Ha & Dal Ah Gi Ho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570-74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friendship networ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elderly. The friendship relations were measured by several variables such as number of friends and social support, whil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as measured by the happiness and depression scales for the 302 elderly respondents. Both happiness and depression levels for the elderly people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variable psychological support among all the friendship relation variable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the subjective health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ccounting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considering both the friendship relation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the regression analysis.

(논문접수일: 1999년 9월 15일)

(수정논문접수일: 1999년 10월 30일)

(논문게재승인일: 1999년 11월 20일)